

사찰 연기설화 · 고승의 생애 · 사하촌 이야기 등

영화·게임 소재 '무궁무진'

역사에서 문화코드를 찾아 영화 드라마 게임 등을 양산해 인기몰이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2월 21일 개최한 2006 문화원형 콘텐츠에서 '문화원형 소재의 역사 드라마 콘텐츠로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KBS 드라마 '해신'의 연출자 강일수 PD는 "우리 역사는 문화 콘텐츠 소재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다"며 "드라마 대장금이 문화원형을 드라마 콘텐츠로 개발해 성공한 경우"라고 강조했다.

영화 '왕의 남자'의 제작사 이글픽처스의 정진환 대표, 애니메이션 '오세암'을 제작한 마고21의 이정호 대표, 한국문화가협회 이현세 회장 등도 우리 역사 안에 영화 드라마 만화 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와 개척분야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1000만 관객을 모으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 '왕의 남자'를 살펴보자. '왕의 남자'는 <연산군일기>에 단 한 줄 거론됐을 뿐인 광대를 주인공으로 삼았다. 배우 이준기가 연기한 광대 '공길'은 <연산군일기>에서 "공길이라는 광대가 왕에게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임금이 임금답지 않고, 신하가 신하답지 않으니 비록 곡식이 있을 줄 먹을 수가 있오라'(60권 22장)"는 말을 하였다가 참형을 당했다"는 기록에 의해 되살려진 캐릭터다. 역사 속 인물인 연산군과 녹수, 거기에 허구의 인물 '장생'이 드라마틱한 광대놀이를 재현해내 폭발적인 호응을 얻어냈다.

2002-2003년 전국민의 반수를 TV 앞에 붙잡았던 드라마 '대장금'은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의녀 장금이'가 보양식에 강하다"는 기록에서 궁중음식과 의학을 접목시킨 드라마로 태어났다. 애니메이션 '오세

암'은 오세암에 전해오는 5세 동자 이야기를 만화화했다. 이미 영화로도 선보인 적 있지만 원 설화를 그대로 살린 것은 애니메이션 '오세암' 쪽이 월등했다. 그 결과 2001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특별상 만화부분을 수상하는 등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이렇듯 다양한 역사 속 작은 사실들이 작가와 감독의 상상력을 밑받침으로 문화콘텐츠로 탈바꿈하며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시장까지 문을 두드리고 있다. <삼국유사>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이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사서들이다.

불교에는 무엇이 있을까? <삼국유사> 등 일반 사서에도 불교관련 소재는 많다. 그러나 불교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사찰연기설화이다. 이미 고문학의 원형으로 연구돼 왔던 사찰연기설화는 다양한 애깃거리들을 담고 있다. 곡성 관음사의 창건 설화는 원흥장이라는 여인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중국에 팔려



애니메이션 '오세암'

불교설화 상상력 · 허구성 풍부

멀티시대 문화 원천 소스로 주목

'오세암' '심청전' 등 활용도 높아

갔다 황후가 돼 관음사 창건의 주역이 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청전'의 원형이라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사찰연기설화의 연구>를 펴낸 동국대 김승호 교수(국어교육과)는 "사찰연기설화에서 가장 흥미롭게 만날 수 있는 용 관편 소재들을 만화·영화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눈썰미있는 젊은 작가들이 사찰연기설화를 원천 소스로 역사적 상상력과 환상을 보탠다면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불교문화콘텐츠를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사찰연기설화 외에도 고승들의 생애나 스님들의 수행생활, 사찰을 배경으로 하는 각종 민담, 사하촌에 전해오는 이야기, 전설 속에 숨어있는 불교소재 등도 주목해야 할 문화 콘텐츠이다.

강지연 기자 jiggang@buddhapia.com



영화 '왕의 남자'

강좌

미술로 본 동아시아의 문화교류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관장 구일회)이 '미술로 본 동아시아의 문화교류'를 주제로 제5회 박물관 문화강좌를 개강한다. 3월 24일-6월 23일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이번 강좌는 한·중·일 3국이 전통미술 작품을 통해 동아시아의 문화교류가 어떻게 일어나 활발하게 전개됐는지를 분석한다.

강의는 불교조각 불화 벽화 금속공예 도자기 건축 서화 등 미술사의 모든 장르를 대상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상호 비교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미술의 특징은 물론 우리나라 미술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가장 쉽게 배우고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정희(홍익대) 정우택(동국대) 이상해(성균관대) 이성미(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등이 강사진으로 나선다. (064)720-8100 강지연 기자

여성·어르신들 위한 강좌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근무)이 여성과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강좌를 잇달아 개강한다.

3월 8일-4월 26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교육관 소강당에서 열리는 은하문화학교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강좌다. 상반기 주제는 '동서문화 교류와 한국문화' ▲고대의 동서문화 교류(3월 8일) - 권영필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근세 동서문화의 만남(15일) - 문정희(서울대) ▲한국과 이슬람 세계의 만남(22일) - 정수일 전 단국대 교수 ▲고구려 문화의 국제성과 독자성(29일) - 최종택 교수(고려대) ▲백제 문화의 국제성과 독자성(4월 5일) - 권오영 교수(한신대) ▲통일신라 문화의 국제성과 독자성(12일) - 김리나 교수(홍익대) ▲문화유적 답사(19일) ▲고려 문화의 국제성과 독자성(26일) - 정우택 교수(동국대) 등의 강의가 준비된다.

2006년 상반기 여성문화교실은 '여성들과 함께 하는 박물관'을 주제로 3월 10일-4월 28일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1강의실에서 개최한다. 8회에 걸쳐 진행되는 강의는 윤범모 교수(경원대)의 '시대 앞서간 근대미술의 선각자, 나혜석' 등을 비롯해 조각보, 조선화화 속 여성 등을 들을 수 있다. (02)2077-9294 강지연 기자

생명력 가득한 유화 22점 - 박명순 작품展

"이제 자연인이 되어 느끼게 곁어갓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빛바랜 욕망 다 던져 버리고 허허로운 미소로 오늘조차 잊겠습니다." - 작가 노트 중에서 전국 지방공공미술을 돌며 자연과 대지가 가진 독특한 분위기를 담은 박명순씨의 전시회가 열린다.

경운동 장은선갤러리에서 3월 11일까지 열리는 '내 마음의 여백, 옐로우오커-박명순' 전시회는 동국대 사대부속여고를 2월 27일 정년퇴임한 박명순 교장의 정년 기념전이다.

전시장에 걸린 22점의 그림뿐만 아니라 도록에도 주목해보자. 정혜옥 수필가협회 회장의 글에서부터 송산 스님이 보내온 편지에 이르기까지 박명순 교장의 한 평생을 엿볼 수 있다. (02)730-3533 강지연 기자 불심을 담은 작품 '念'



국립경주박물관, 성덕대왕신종 탁본 전시

국보 제29호 성덕대왕신종의 아름다운 문양들이 탁본으로 관람객을 찾아가는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김성규)은 2월부터 1년 간 성덕대왕신종 탁본(사진)을 미술관 1층 로비에 전시한다.



이번 탁본전에는 종의 상·하대를 장식한 보살상조문, 하대에 속하는 구연대의 연꽃문양,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비천상 등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비천상은 바람에 너울거리는 얇은 옷자락을 걸치고 연꽃 위에 무릎 꿇고 앉아 두 손 모아 향토를 받들고 공양을 드리고 있는 4개의 공양천인상과 2개의 연꽃 모양 당좌, 보살상조문과 연꽃으로 이루어진 띠가 양각돼 있어 국내 최고의 걸작품으로 칭송된다. (054)740-7518 강지연 기자

황지우 시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취임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장(53·시인·사진)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제5대 총장으로 3월 9일 취임한다. 3월 2일 임명장을 받은 황지우 신임 총장은 전남 해남 출생으로 서울대 문리대 미학과,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홍익대 대학원 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8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서 시 '연학'으로 입선했고 <문학과 지성>에 수필 '대답 없는 날들을 위하여'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게> 등의 시집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계 눈 속의 연꽃> 등은 불교적인 사상을 녹인 시들로 호평을 받았다.

황지우 신임총장은 "앞으로 기초예술과 CT의 상호작용 증대, 예술교육의 국제네트워크 강화, 6개월 전공교육 심화 등을 꾀하며 '지속과 도약'을 화두로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지연 기자

혼자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어든은 어려워도
세살은쉬운
초살이

글쓴이 | 차 차 석
신국판 | 양장본 286쪽 | 값 10,000원



"이제 사람과 하늘의 이익과 안락 그리고 세상에서 구하는 미래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 법을 전하러 떠나거라."

부처님의 '전도선언' 중에서

- I. 부처님, 이 땅에 오시다 부처님이 세상으로 오심으로써 비롯된 불교발달사 및 핵심교리
- II. 없음과 비움의 철학적 사색 불교의 기본사상인 무아, 윤회, 공사상의 변천사
- III. 계율 이야기 승가를 유지하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계율의 근본정신과 발달사
- IV. 수행과 삶의 이야기 이상적인 불교적 삶의 방법론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 V. 부처님, 여성을 보다 어떤 페미니스트보다 앞선 부처님의 여성관

차 차 석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동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불교신문 논설 위원, 한신대학교 신학 협력단 연구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 출강 하는 등 불교 일기기에 전념하고 있다.

우리출판사

전화: 02)313-5047 팩스: 02)393-9696 woribook@chol.com